

비아그라, 신생아에게도 효과?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 선천성 심장질환 아기에게 도움 주장

말기장애 치료제 비아그라가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위험에 처한 신생아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들이 <호흡 및 중환자의학> 11월호에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들이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 중환자실이 사용하는 치료법인 산화질소 흡입요법을 중단중인 선천성 심장질환 아기 15명에게 비아그라 1알씩을 투여했다.

산화질소 흡입요법을 중단중인 또 다른 아기 14명에게는 비아그라 대신 위약을 투여했는데 산화질소는 인공 호흡을 받는 폐의 혈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실험 결과 비아그라가 신생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단히 흔한 질환인 반동성 폐고혈압으로 불리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아기들의 인공호흡기 의존시간 및 중환자실에 보내는 시간을 뚜렷하게 줄였다고 보고했다.

비아그라로 치료받은 아기들은 아무도 반동성 폐고혈압에 걸리지 않았으나 위약으로 치료받은 아기들은 무려 10명이나 걸렸다.

또 비아그라 치료 아기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시간이 28시간 남짓으로 위약치료 아기들의 98시간보다 크게 적었고, 중환자실에서 머문 시간도 47.8시간 대 189시간으로 상당히 더 짧았다고 보고했다.

수석 연구자인 멜버른 소재 로열어린이병원 소아중환자실의 라라 세케르데미안 박사는 “비아그라가 동맥을 풀어주고 동맥압력을 줄이는 자연 발생 물질인 사이클릭 GMP의 수치들을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사이클릭 GMP는 폐 속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산화질소는 분자를 통해 폐동맥 확장약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무단전제 금지>

<화학저널 2006/11/08>